

---

# 함평군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2017년도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

『11. 13. ~ 11. 17. (4박5일간) / 중국정주, 상하이』



**함 평 군 의 회**  
(의회사무과)

# 목 차

<b>I. 연수 개요</b> .....	<b>1</b>
1. 연수 목적 / 1	
2. 연수기간 및 국가 / 1	
3. 연수자 명단 / 2	
4. 연수일정 / 2	
<b>II. 방문국 현황</b> .....	<b>3</b>
<b>III. 연수 내용</b> .....	<b>5</b>
<b>IV. 연수 총평, 답사지별 함평군정 접목의견</b> ....	<b>14</b>

## 1. 연수목적

- 중국의 문화유적지 탐방하여 문화관광산업을 비교 견학하고 국제적인 안목 확대함으로써 우리군 관광산업발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정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함
- 신념의 충실함을 상징하는 기산지절의 근원지이며, 우리군 기산과 영수의 원조지명이 있는 중국 허난성 덩핑시와 우호 교류 체결을 위한 현장 답사 및 양 국가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통하여 협력 체계 구축

## 2. 연수기간 및 국가

- 연수기간 : 2017. 11. 13. ~ 11. 17. (4박5일)
- 대 상 국 : 중국(정주, 상하이)



### 3. 연수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1	함평군의회	부의장	정 경 임	
2	함평군의회	의회운영 위원장	이 진 섭	
3	함평군의회	일반행정 위원장	윤 앵 량	
4	함평군의회	경제건설 위원장	정 철 희	
5	함평군의회	의 원	정 수 길	
6	함평군의회	의 원	이 재 영	
7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윤 영 선	
8	의회사무과	직 원	정 선 이	
9	의회사무과	직 원	이 효 진	

### 4. 연수 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주요일정	비고
11.13(월) 1일차	정주시	KE 809 전용차량	- 인천국제공항 출발(약 2시간 소요) - 정주국제공항 도착 - 정동신구 CBD 유람	
11.14(화) 2일차	등봉시	전용차량	- 등봉시 우호 교류 기관 방문 - 소림사 방문	
11.15(수) 3일차	상하이	열차이동 전용차량	-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방문 - 신천지, 예원(상해옛거리) 탐방 - 황포강유람선 외탄야경 감상	
11.16(목) 4일차	상하이	전용차량	- 주가각(방생교 등) 답사 - 윤봉길의사 생애사적 전시관 방문 - 동방명주탑, 역사박물관 답사	
11.17(금) 5일차	상하이 인천	전용차량 KE 898	- 남경로 답사 -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출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함평군청 이동	

## 1. 중국 기본현황

	<p>위 치 : 아시아 대륙 동부와 태평양 서안에 위치  수 도 : 베이징  경위도 : 동경 105° 00', 북위 35° 00'  면 적 : 959,6961km<sup>2</sup>(세계 4위, 한반도의 약 44배)  인 구 : 약13억7354만1278명  종족구성 : 한족(91.5%) 기타(8.5%)  언 어 : 중국어  종 교 : 도교, 불교(35%), 기독교(3.5%), 이슬람교(1.8%) 등  기 후 : 광대한 영토로 인해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함. 최남단 지역의 열대기후, 서부 지역의 건조기후, 동북 지역의 한대기후 등</p>
---	---

## 2. 덩핑시 기본현황

- 위 치 : 중국 허난성 덩핑시(허난성의 중서부)
- 면 적 : 1,220km<sup>2</sup>
- 인 구 : 약670,000명
- 행정구역 : 3개 가도, 8개 진, 5개 향
- 행정조직 : 실·국·위원회 28개소, 읍면 12개(읍8, 면4), 사업소 4, 개발구 2
- 종 교 : 불교, 도교
- 기 후 : 연평균 기온 14.3℃, 강수량 52.4mm
- 교 육 : 고등학교 7개소, 전문무술학교 20개소
- 관 광 : 송산, 소림사 등
- 특 산 품 : 차(茶)
- 역 사 : 중국 하왕조시대 수도 (현재의 덩핑시 고성읍)  
→ 중국은 전설시대인 삼황·오제를 거쳐, 하(夏)·상(商)·주(周) 왕조의 3대 시기가 계속되었다고 함.

- 하(夏)나라 : 약 기원전 21세기, 중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  
약 500년 후 멸망 (고고학적 미실증)
- 상(商)나라(은(殷)나라) : 약 기원전 16세기 하남성(河南省)  
안양현(安陽縣) 중심으로 청동기, 갑골문자 사용
- 주(周)나라 : 기원전 11세기경 섬서성(陝西省) 호경 (鎬京)에 도읍을  
둔 주나라가 일어나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봉건적 지배체제를 확립

### 3. 상하이 기본 현황

- 위 치 : 중국 양쯔강 하구
- 면 적 : 6,341km<sup>2</sup>
- 인 구 : 약24,150,000명
- 행정구역 : 17개 구
- 종 교 : 불교, 기독교
- 기 후 : 연평균 기온 18.1℃, 강수량 1,158.1mm
- 교 육 : 100개 이상의 연구 기관, 100개 이상의 전문 과학 교육 기관
- 관 광 : 예원, 상하이박물관, 동방명주탑 등
- 특 산 품 : 비단
- 역 사 : 상하이의 경우는 호(滬), 신(申) 등의 간칭하여 사용
  - 호(滬)라는 간칭은 호독(滬瀆)에서 유래
    - 호(滬)에서 출발한 글자로 바다에 대나무를 나란히 꽂아 새끼로  
엮고 해안 쪽으로 두 날개를 펼쳐 밀물, 썰물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 일종의 어구를 상형화한 것
  - 신(申)은 전국시대 초나라 귀족으로 고열왕에 의해 춘신군으로 봉해진  
황혈이라는 인물에서 연유

### Ⅲ 연수 내용

#### 1. 정주시 정동신구 CBD

정동신구(鄭東新區)는 수역(水域)으로 이루어진 성이다. 수상여행 관광 수역의 동서운하 제일 긴 구간은 약 3.2km이고 남북운하 제일 긴 구간은 1km이며 여의호(如意湖) 면적은 약0.105km에 달한다. 관객의 수요에 따라 수상관광 유람버스와 호화유람선은 고정된 선로, 횡수, 정구 형식으로 운행하며 운하의 중심 호수를 주요 관광코스로 한다. 매 관광지에서 하선, 승선하여 관광할 수 있다

정동신구(鄭東新區) CBD 운하 관광유람은 정동신구(鄭東新區) 수역과 용호선 인구문화와 생태도시 등과 완미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수상문화를 재현하여 수변지역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중국 총리 리커창이 자신의 고향 정주를 현대적 건축물로 새로운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거대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다. 수역 주변에는 초호화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고가의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 아파트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로서 일반시민은 구입하거나 여기에서 거주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한국 돈으로 약 15억에서 20억에 이르는 아파트가 정주시 신시가지에 조성됨으로서 정주시 부의 상징건물이 되었으나 일반서민들에게는 고가에 아파트라서 경제적 수입에 따른 양극화를 초래하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저우시는 중국 13억인구의 10%를 차지하는 1천만명(대한민국의 서울 인구와 비슷)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시가지 건설지역으로 초호화 아파트촌 형성과 함께, 황하강 물주기를 끌여 들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탈바꿈 하려는 시도의 수로 개발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내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먼지가 뿌연 도시의 모습에서 환경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느껴보며, 먼지를 잠재우기 위한 살수차 동원이 이채롭다.

## ○ 현장사진



『정주 정동신구의 건물』



『정주 정동신구의 아파트』

## 2. 덩펑시 (우호 교류 기관)

등봉시는 중국어로 덩펑이라고 칭한다. 이 지역에 중국의 5대 산악의 하나인 숭산이 있고, 여기에 소실산과 태실산이 있어 사찰과 산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등봉시는 조그마한 도시인데도 개발의 바람이 여지 없이 불고 있었고 이곳에 소림사가 있어 소림이라는 낯익은 단어가 빨간색과 채색하여 소림사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함평군과 우호교류 협약이 체결되어 등봉시 국제관계 과장이 직원들과 함께 함평군의회 의원과 직원들을 반갑게 환대해주었고, 이견훈 등봉시 국제주임의 안내로 첫 번째로 답사한 관성대는 한국의 침성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기후, 시간의 흐름을 절기로 표현하여 해시계의 역사 보존물의 등봉시의 문화유산으로서 역사를 보여주는 모습에서 등봉시가 고대 수도였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담당직원의 안내로 해시계와 역사문화시설 소개가 끝나고 등봉시 공산당 상무위원과 부시장이 함평군의회 의원과 직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점심을 초대하였고, 함평군과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 하자고 약속하였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함평군에서 개최되는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때 군에서 초청하여 주시면 등봉시 관계자들이 함평군 행사에 참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 ○ 현장사진



## 3. 소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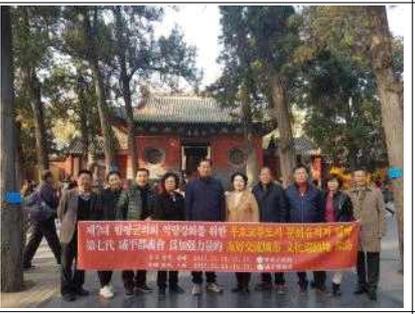
소림사는 또 무술로 유명하다. 소림 무술은 수당 시기에 이미 세상에 알려졌으며, 송대의 독특한 풍격으로 ‘소림파’ 라는 중국 무술 중 하나의 문파가 되었다. 소림사는 오랜 시간을 지내오는 동안 많은 유적들이 손실되긴 했지만, 여전히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문물들은 모두 오랜 역사와 예술적·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서기 464년 불타선사라는 인도의 승려가 중국으로 와 불법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림사는 서기 494년에 창건 되었다 한다. 바로 소림사에서 인도의 불경등이 중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선종 교리가 완성되었다. 불타선사는 도한 참선을 보완하는 수행 방법의 하나로 무술을 도입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무술이 훗날 고난도의 소림 쿵푸로 발전하였다. 한국에서도 80년대 소림 무술의 인기가 있었다. 덩펑시에서는 송산에 창건된 소림사를 국가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홍콩여행사가 운영한다는 가이드의

설명에서 건물관리비의 비용 부담을 사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영마인드이기도 한 것 같다.

1천 5백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소림 무술은 무승단 교육기지 방문에서 학생들의 활기에 찬 가득한 무술 시범에서 느낄 수가 있었다. 전국각지에서 소림무술권법을 배우기 위해 1만5천명의 학생이 무술을 배우고 있으며, 향후 중국 경찰 및 경비업체로 취업을 한다는 안내는 취업난 해소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앞섰다.

### ○ 현장사진

		
『소림 무술단 교육기지』	『소림 무술 공연』	『소림 무술 공연』
		
『소림사 정문』	『소림사 입구』	『소림사 현장』

## 4. 상하이

### ◎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오늘날 우리가 임시정부 청사로 알고 찾아가는 곳은 마당로(馬當路)에 있는 3층 벽돌집으로, 1926년부터 윤봉길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1932년 직후까지 청사로 사용하던 곳이다. 매우 넓고 도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언뜻 보면 쉽게 지나쳐버릴 수도 있을 만큼 초라하지만, 하루에도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다. 1층에서 짧게 동영상 상영을 하고 나면 2층과 3층의 전시관을 관람하였다. 전시관 내에는 당시 쓰였던 가구, 서적,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어서 자료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 또한 좋은 공부가 되었다. 건물 내에 작은 상점을 운영하여 우표, 악세사리, 장식품 등 기념품들을 팔아 청사 유지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함평군의회 의원님과 우리군청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함평출신 김철의사의 활동을 물어보니 모른다고 대답해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해설사가 독립운동을 김구 선생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김철의사의 활동을 모른다고 대답했으나 나중에 김철 의사의 사진이 명백히 있음을 알고 나서 자기가 너무 몰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함평군의회 의원님과 직원들도 이국땅 멀리에서 김철 선생의 독립운동의 활동상을 확인하고 함평의 자존심과 긍지를 한층 더 뿌듯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 현장사진



『임시정부청사 안』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 ◎ 상하이의 최대 거리 신천지

홍콩 루이안(瑞安) 그룹이 199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에 마무리한 신천지(新天地)는 옛 프랑스 조계지였던 타이창루[太倉路]와 싱예루[興業路]에 있다. 한때 정치적 망명객들의 안식처이기도 했던 신천지는 이제 상하이 최고의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현재 신천지 주변지역은 상하이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에서도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다. 중국의 로테오 거리라고도 불리는데,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다. 아름다운 야경, 식민지 시대의 고풍스러운 건물, 중국의 전통정원까지 여러 가지 볼거리가 몰려 있다. 특히 유럽식 건물을 리노베이션 한 상점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거리에 넘쳐나는 외국인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신나는 음악과 재즈, 중국의 그 어떤 지역보다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쳐 많은 관광객들이 꼭 찾는 곳이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과 한껏 멋을 낸 중국 젊은이들이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신천지는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야외에서 맥주나 와인을 마시면서 멋진 밤을 보낼 수 있다.

### ◎ 예원

세련된 면만 부각되는 상하이에서 7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전통 상업구역이다. 한국에서는 예원이라는 정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예원 보다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상가 밀집군인 예원상성이 주로 찾는 명소이다. 상해사람들에게는 성황묘 혹은 상해옛거리로 더 알려져 있다. 금은보석을 비롯하여, 소장품, 기념품, 전통음식, 골동품 등 각종 상품의 집결지이며 상하이의 필수 여행코스이다.

### ○ 현장사진



『중국 상하이 예원의 야경』



『중국 상하이 예원의 야경』

## ◎ 외탄

외탄은 상해의 상징이자 상해 현대 역사의 축도이다. 전체 길이가 약 1.7km이며, 다양한 국가의 건축 양식이 모여 있어서 ‘세계 건축 박물관’이라고 불리며, 한쪽으로는 넓은 제방을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황포강의 경관을 즐기기 위해 항상 붐비는 곳이다. 황포강 위를 운행 하는 여객선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기념이 될 것이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이 전체 제방을 비추어 유럽 도시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갖게 하고, 근처에 위치한 동방명주탑의 불빛이 외탄을 더욱 밝게 한다.

## ○ 현장사진



『중국 상하이 외탄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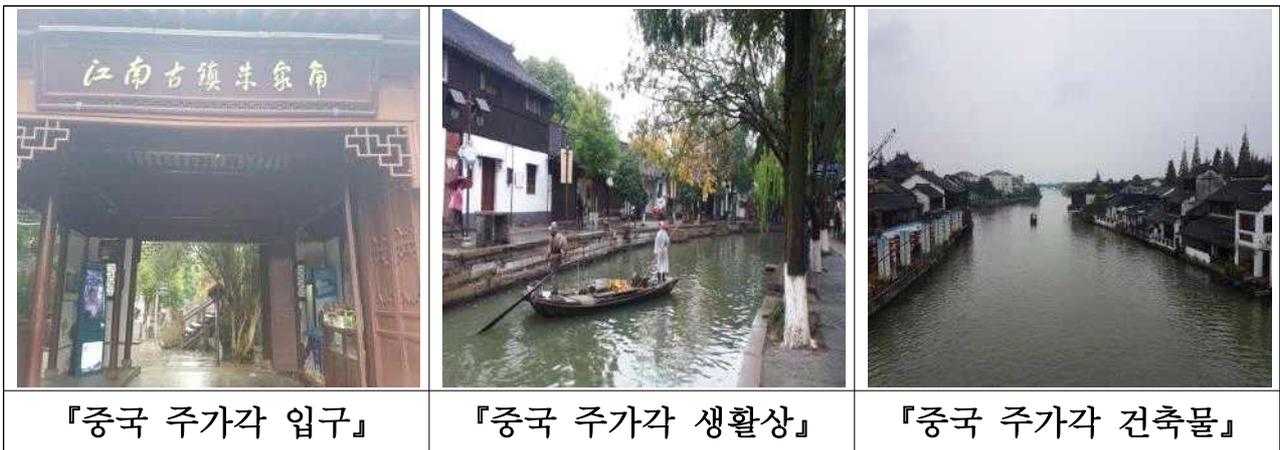
『중국 상하이 외탄 야경』

## ◎ 상하이의 옛 전통거리 주가각

동양의 베니스라는 별명을 가진 주가각은 1700여 년 전에 촌락이 형성된 곳으로 장대한 역사를 자랑한다. 주가각의 입구에 자리한 인포메이션 센터에서는 주가각 내부에 자리한 크고 작은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주가각의 수향마을에 입장하기 위해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티켓은 아니다. 옛 우체국이나 오래된 정원,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한약방 등을 특별히 관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냥 입장해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수향마을을 감상할 수 있다. 주가각은 정겨운 옛 가옥에 울퉁불퉁 돌로 된 바닥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골목과 골목이 모여 있는 마을이다.

주가각 수향마을에 들어섰다면 꼭 한번은 건너게 되는 다리가 하나 있다. 바로 수향마을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인 방생교이다. 명나라 시대 스님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지었다는 이 다리에서 스님들이 방생을 했다는 이 다리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직접 방생을 할 수 있도록 금붕어와 자라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다. 그밖에도 골목골목 기념품과 음식들을 파는 상인들 주가각에서 잡은 생선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들 주가각이 삶의 터전인 주민들의 모습 등 소란스러우면서도 평화로운 정취를 느낄 수 있다.

### ○ 현장사진



### ◎ 홍구공원(윤봉길의사의 항일정신이 깃든 역사적인 명소)

윤봉길의사의 의거 현장인 노신공원(구 홍구공원, 虹口公園) 노신공원(魯迅公園, 루쉰푹위엔)이라고도 불리는 이 공원 안에는 노신의 묘와 기념관이 위치해 있다. 기념관은 노신의 고향인 소흥성의 건축 양식을 따라 지어졌으며, 기념관 안에는 작가의 필체가 담긴 원고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무덤에는 모택동이 직접 쓴 ‘魯迅先生之墓(노신선생의 묘)’ 라는 글자가 있다.

한국인에게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사의 의거 현장으로 기억되는 곳으로 최근에 윤의사의 항거를 기념하는 기념탑이 세워졌다. 매정(梅亭 : 메이팅)이란 이름의 정자가 세워져 있지만, 주위에 ‘윤봉길 의거 현장’ 이라고 새겨진 비석만이 홀로 서 있어서 단지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공원은 1932년대처럼 넓은 광장은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지금은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공원내부에는 수로를 건설하여 시민들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원 내부 산책로를 따라 들어가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다. 기념관에는 윤봉길의사의 활동을 기억할 수 있게 잘 전시가 되어 있었다. 기념관 뒤편에는 윤봉길의사의 활동을 기억할 수 있게 동영상 상영되어서 그 당시의 활동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홍구공원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과 동영상 상영을 보고나서 불과 32세의 젊은 나이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영혼을 불사른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 현장사진



『홍구공원 (루선) 입구』



『홍구공원,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



『홍구공원, 윤봉길 의사의 생애 동영상』



『홍구공원, 윤봉길 의사 생애 안내판』

## 1. 연수 총평

2017년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4박5일의 함평군의회 중국 해외 연수는 우리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등봉시 방문에서 향후 우호교류 협력 분야를 논의하였으며, 정저우시의 상하이의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중국의 경제 개방 정책에서 함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으며,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윤봉길 의사 항일운동의 현장 답사는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현장 답사지별 함평군정 접목 의견

### ○ 정저우 정동신구 CBD 답사

함평군 월야면에 조성중인 빛고을 산단 완공과 연계하여, 입주민들이 함평에 거주할 수 있는 친환경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함평군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쳐야 하겠다.

### ○ 등봉시(관성대, 무승단교유기지) 방문

등봉시 영접단 일행과의 면담에서 양 자치단체의 교류도 실현 의견은 무술기지 시범 학생 초청으로 2018년 함평나비 대축제시 무술시범의 관람꺼리 프로그램으로 도입하였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다.

→ 타시군의 예) 전라북도 무주군은 2004년에 우호교류 협약에 따라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무주군 : 무주반딧물 축제, 등봉시 : 소림 국제 무술축제)

## ○ 소림사 답사

중국 소림사의 명성을 함평 용천사와 교류를 통한 용천사권 관광객 유치 및 명소화 하는 방안도 모색 할 필요성을 느껴 보았다.

## ○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우리군 신광면에 있는 일강 김철 기념관과 연계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 시켜 나가야 하겠다.